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비교

안수지¹, 성경미^{2*}

¹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²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Effects of Practice Str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Self-efficacy in Pandemic Situation: Comparison of Clinical Practice and In-school Practice

Su Ji An¹, Kyung Mi Sung^{2*}

¹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하고 교내실습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5명이었고, 그 중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157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와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은 성별($p=.047$), 건강상태($p<.001$), 학업성적($p<.001$), 전공만족도($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p=.001$), 학업성적($p<.001$), 전공만족도($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p=.001$), 4.0이상 학점($p<.001$), 실습스트레스($p=.002$), 3.5~4.0미만 학점($p=.020$), 간호직에 대한 생각($p=.022$)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24.9%이었다.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스트레스($p<.001$), 전공만족도($p=.031$), 4.0 이상 학점($p=.001$), 실습 동료와 관계($p=.001$)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25.5%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격차를 줄이고, 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 동료와의 관계와 학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the self-efficac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pandemic situation and examines their in-school practice experiences. The data of 157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two nursing universities located in J City were qualitatively analyz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April 3, 2022.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and by qualitative data analysis.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p=.047$), health status ($p<.001$), academic performance ($p<.001$), major satisfaction ($p<.001$),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fellow trainee ($p<.001$). On the other hand, self-efficacy in in-school practi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p=.001$), academic performance ($p<.001$), major satisfaction ($p<.001$),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fellow trainee ($p<.001$). The factors that affecte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were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p=.001$), credits of ≥ 4.0 ($p<.001$), practice stress ($p=.002$), $< 3.5-4.0$ credits ($p=.020$),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22$), and these factors had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4.9%. The factors that affected in-school practice self-efficacy were practice stress ($p<.001$), major satisfaction ($p=.031$), credits of ≥ 4.0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p=.001$), and these factors had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5.5%. Our results show an educational strategy is needed to reduce the gap and practice stress and increase credits and relationships with practice colleagues by addressing the vulner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and in-school practice.

Key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In-schoo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Kyung Mi Sung(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sung@gnu.ac.kr

Received November 9, 2022

Revised January 16, 2023

Accepted February 3,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 임상실습이 필수인 간호학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다양한 실습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교내 실습이나 온라인실습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2], 일부 임상실습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어 결국 혼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3].

대부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기는 아직 어려운 미숙한 상태로 새로운 임상 환경에 적응하고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상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실습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실습스트레스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5] 실습 시 이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면 팬데믹 이전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대체 실습을 병행했을 경우보다 높았다[6-8]. 이는 학생들이 임상실습보다는 대체 실습을 병행한 혼합실습이 임상 현장에 대한 부담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9]. 따라서 임상실습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비교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습만족도는 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과 의사소통능력,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았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1-13]. 또한, 앞으로 팬데믹 상황의 지연 및 반복으로 임상실습 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감염관리의 강화로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실습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습만족도를 올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9,14].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15], 이러한 신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 실습에 임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16].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혹은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연구[17]나 자기효능감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18,19], 실습에서 어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특히 이들의 교내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학 실습 교육은 앞으로 팬데믹 현상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하고,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수도 있으므로 임상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에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에 교내실습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양질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 및 분석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된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을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교내실습 경험을 탐색하는 혼합연구로 실시되었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대도시 소재한 2개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최근 18개월 이내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을 모두 경험한 자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조사연구에 적용되는 중간크기의 효과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일반적 특성 13개와 독립변수 3개를 포함했을 때 최소 204명이었으므로 10%의 최소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5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개방형 질문 참여자는 168명이었으나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57명의 자료를 질적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양적 자료수집을 위해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시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교내실습 시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총 150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아래와 같다. 교내실습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3개의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 성별, 나이, 건강상태,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나 실습기간 등에 관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실습스트레스

Beck와 Srivastava[21]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도구를 Kim과 Lee[22]가 수정 및 보완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교내실습스트레스는 관련 없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으로, 간호사를 실습 지도교수로 수정한 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경험이 모두 있는 5명의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17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Content Validity Index=0.85).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 .89, 교내실습스트레스 .83이었다.

2.3.3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Lee 등[23]이 Cho와 Kang[24]의 도구와 Lee[25]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6개의 하

위영역의 총 31문항 도구로 측정하였다. 교내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으로 수정한 후 5명의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Content Validity Index=0.89).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 .94, 교내실습만족도 .92였다.

2.3.4 자기효능감

Sherer 등[26]의 도구를 Oh[27]가 변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개 하위영역의 총 1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도구 신뢰도는 Oh[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0이었고, 본 연구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은 동일하게 .90이었다.

2.3.5 교내실습 경험

본 연구자는 질적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한국 질적탐구학회에서 주최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이수하고,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연구수행과정에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을 대체한 교내실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고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을 모두 경험한 간호대학 교수 5인에게 5점 척도의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하고(CVI=.80), 질문유형에 대한 의견('교내실습 경험은 무엇인가요?'를 교내실습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후 아래와 같은 질문을 설문지에 추가하고 학생이 기술할 수 있는 공란을 제공하였다.

-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임상실습을 대체해 교내실습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교내실습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교내실습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기술해주세요.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 GIRB-A22-Y-0013)을 받은 후 2022년 3월15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모집 공고문, 설명문, 동의서를 학과 게시

판과 학과 단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설명문과 동의서가 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설문지를 전달하고 전자 동의서에 동의 한 후 온라인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과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쉘레 검증으로 하였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식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은 질적 내용분석에 따라 연구자 외 질적자료 분석 경험이 있는 1인이 독립적으로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교내실습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유사한 내용을 모아서 재기술하고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최종 합의된 의미 있는 내용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종합한 다음 참여자들의 교내실습 경험이 잘 드러나는 주제로 명명하고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점검 과정을 거쳤다.

2.6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를 포기하더라도 연구대상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화된 아이디를 부여하고 연구자료 보관 파일에 따로 저장하고, 연구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온라인 설문

지는 연구가 종료된 후 3년 동안 보관 후 영구히 삭제하여 익명성을 유지할 것을 보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5명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34명(15.8%), 여자 181명(84.2%)으로 평균 연령이 만24.37±6.36세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34	15.8	
	Female	181	84.2	
Age	21	85	39.5	24.37±6.36
	22	52	24.2	
	23~24	31	14.4	
	≥25	47	21.9	
Health state	Good	113	52.6	
	Normal	94	43.7	
	Bad	8	3.7	
Application motivation	School grade	15	7.0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	41	19.1	
	Easy employment	107	49.8	
	Volunteer spirit nurse image	28	13.0	
Grade	4.0-4.5	49	22.8	
	3.5-3.9	68	31.6	
	3.0-3.4	67	31.2	
	≤2.9	31	14.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3	43.3	
	Moderate	109	50.7	
	Dissatisfied	13	6.0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101	47.0	
	General	103	47.9	
	negative	11	5.1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145	67.4	
	Moderate	70	32.6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	38	17.7	
	General nurse	45	20.9	
	Preceptor nurse	18	8.4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	114	53.0	
Clinical practice period				7.11±4.45
In-School practice period				4.89±2.76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스트레스의 전공만족도($F=9.64,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12.92,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5.4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만족도에서는 연령($F=3.26, p=.022$), 건강상태($F=3.93, p=.021$), 전공만족도($F=9.91,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4.22, p=.016$), 실습 동료와의 관계($t=3.7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t=2.02, p=.047$), 건강상태($F=8.80, p<.001$), 학업성적($F=6.19, p<.001$), 전공만족도($F=14.60,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10.56,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5.2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스트레스에서는 전공만족도($F=6.39,$

Table 2.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clinical practice (N=215)

Variables	Categories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an±SD	t/F	<i>p</i> (Scheffe)	Mean±SD	t/F	<i>p</i> (Scheffe)	Mean±SD	t/F	<i>p</i> (Scheffe)
Gender	Male	2.64±.80	-1.56	.126	3.44±.61	1.51	.134	3.60±.60	2.02	.047
	Female	2.86±.51			3.28±.58			3.39±.55		
Age	21 ^a	2.82±.49	.34	.798	3.41±.49	3.26	.022	3.48±.52	1.34	.264
	22 ^b	2.82±.55			3.33±.58		a>d	3.29±.59		
	23~24 ^c	2.76±.60			3.31±.46			3.40±.47		
	≥25 ^d	2.89±.71			3.08±.77			3.48±.67		
Health state	Good ^a	2.76±.60	1.84	.162	3.40±.58	3.93	.021	3.55±.57	8.80	<.001
	Normal ^b	2.90±.50			3.21±.59		a>c	3.30±.49		a>c
	Bad ^c	2.93±.77			3.01±.49			2.93±.75		
Application motivation	Suitable school grade ^a	2.68±.86	1.68	.157	3.21±.51	1.20	.312	3.16±.44	1.60	.176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 ^b	2.70±.64			3.46±.54			3.40±.68		
	Easy employment ^c	2.92±.49			3.27±.61			3.41±.52		
	Volunteer spirit ^d	2.80±.60			3.36±.60			3.61±.60		
	nurse image ^e	2.73±.49			3.20±.59			3.45±.58		
Grade	4.0-4.5 ^a	2.83±.56	.60	.614	3.37±.42	.34	.797	3.65±.59	6.19	<.001
	3.5-3.9 ^b	2.90±.52			3.28±.55			3.45±.51		a,b>d
	3.0-3.4 ^c	2.77±.60			3.31±.70			3.35±.52		
	≤2.9 ^d	2.80±.64			3.25±.66			3.14±.6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2.68±.57	9.64	<.001	3.50±.55	9.91	<.001	3.61±.54	14.60	<.001
	Moderate ^b	2.89±.53		c>a,b	3.16±.52		a>c	3.32±.51		a,b>c
	Dissatisfied ^c	3.34±.49			3.10±.95			2.87±.62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a	2.63±.62	12.92	<.001	3.43±.62	4.22	.016	3.60±.59	10.56	<.001
	General ^b	2.99±.46		b,c>a	3.19±.50		a>b	3.27±.46		a>c
	negative ^c	3.09±.49			3.23±.85			3.21±.73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2.70±.58	-5.40	<.001	3.41±.58	3.78	<.001	3.55±.55	5.21	<.001
	Moderate	3.09±.45			3.09±.55			3.15±.51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 ^a	2.70±.64	.93	.426	3.40±.53	.58	.629	3.45±.55	.33	.806
	General nurse ^b	2.85±.53			3.30±.65			3.46±.56		
	Preceptor nurse ^c	2.78±.70			3.20±.57			3.31±.52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 ^d	2.87±.54			3.29±.59			3.41±.58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7.90,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4.0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F=3.80, p=.024$), 간호직에 대한 생각($F=3.22, p=.042$), 실습 동료와의 관계($t=2.23,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F=7.57, p=.001$), 학업성적($F=6.92, p<.001$), 전공만족도($F=16.69,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9.69,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

($t=5.12, p<.0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3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비교

실습스트레스는 임상실습(2.83 ± 0.57 점)이 교내실습(2.44 ± 0.53 점)보다 높았고($t=10.33, p<.001$), 실습만족도도 임상실습(3.30 ± 0.59 점)이 교내실습(3.23 ± 0.56 점)보다 높았다($t=2.94, p=.004$).

Table 3.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in-school practice (N=215)

Variables	Categories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an±SD	t/F	<i>P</i> (Scheffe)	Mean±SD	t/F	<i>P</i> (Scheffe)	Mean±SD	t/F	<i>P</i> (Scheffe)
Gender	Male	2.32±.52	-1.42	.158	3.28±.58	.62	.539	3.62±.61	1.92	.056
	Female	2.46±.53			3.22±.56			3.41±.58		
Age	21 ^a	2.46±.50	1.38	.250	3.27±.54	1.51	.214	3.44±.53	.10	.959
	22 ^b	2.31±.50			3.27±.54			3.41±.65		
	23~24 ^c	2.48±.48			3.25±.50			3.47±.51		
	≥25 ^d	2.51±.65			3.07±.65			3.47±.66		
Health state	Good ^a	2.41±.50	.48	.619		2.75	.066	3.56±.59	7.57	.001
	Normal ^b	2.47±.58						3.36±.53		a,b,c
	Bad ^c	2.34±.41						2.85±.73		
Application motivation	Suitable school grade ^a	2.51±.45	.28	.894	3.21±.50	.25	.907	3.19±.44	1.45	.220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 ^b	2.48±.64			3.28±.54			3.42±.66		
	Easy employment ^c	2.42±.52			3.21±.60			3.44±.58		
	Volunteer spirit ^d	2.37±.54			3.28±.57			3.63±.50		
	nurse image ^e	2.46±.47			3.17±.49			3.44±.60		
Grade	4.0~4.5 ^a	2.41±.46	.65	.581	3.22±.49	.15	.930	3.73±.63	6.92	<.001
	3.5~3.9 ^b	2.46±.52			3.23±.55			3.44±.53		a>c,d
	3.0~3.4 ^c	2.39±.56			3.25±.58			3.37±.49		
	≤2.9 ^d	2.54±.63			3.17±.68			3.17±.6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2.31±.50	6.39	.002	3.34±.60	3.80	.024	3.67±.54	16.69	<.001
	Moderate ^b	2.51±.49		c>a	3.15±.46		a>c	3.32±.54		a>b>c
	Dissatisfied ^c	2.76±.83			3.04±.90			2.90±.64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a	2.29±.49	7.90	<.001	3.32±.59	3.22	.042	3.62±.57	9.69	<.001
	General ^b	2.56±.52		c>a	3.13±.49		a>b	3.28±.51		a>b,c
	negative ^c	2.63±.70			3.28±.80			3.36±.92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2.34±.52	-4.09	<.001	3.28±.59	2.23	.027	3.58±.56	5.12	<.001
	Moderate	2.64±.51			3.11±.48			3.17±.53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 ^a	2.36±.62	.89	.446	3.23±.53	.13	.941	3.44±.58	.70	.555
	General nurse ^b	2.47±.58			3.26±.59			3.55±.63		
	Preceptor nurse ^c	2.60±.39			3.17±.54			3.34±.55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 ^d	2.42±.50			3.22±.57			3.42±.58		

3.4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r=-.312,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만족도($r=.243,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401, p<.001$)를 보였다.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r=-.338,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만족도($r=.227,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412, p=.001$)가 있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variables in clinical practice and in-school practice (N=215)

Variables		Practical Stress	Practical Satisfaction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Practical Stress	1		
	Practical Satisfaction	-.401 (<.001)	1	
	Self-efficacy	-.312 (<.001)	.243 (<.001)	1
In-school practice	Practical Stress	1		
	Practical Satisfaction	-.412 (<.001)	1	
	Self-efficacy	-.338 (<.001)	.227 (<.001)	1

3.5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 중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여자 기준), 건강상태(나쁨 기준), 학점(3.0 미만 기준), 전공만족도(불만족 기준), 간호직 생각(부정적 기준), 실습 동료와의 관계(보통 기준)등 6개와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등 총 8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2.061로 2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에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지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고, 공차한계 .827~.855로 .10이상, 분산팽창인자는 1.170~1.210로 10 이

하로 나타나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도 없었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N=215)

Variables	B	SE	β	t	p	Cumulative R ²	R ² Variation
(constant)	3.60	.22		16.73	<.001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 Good	.26	.08	.22	3.38	.001	.113	.113
Credit : 4.0 or higher	.36	.09	.27	4.11	<.001	.160	.047
Practical stress	-.20	.07	-.21	-3.12	.002	.207	.047
Credit: Less than 3.5~4.0	.19	.08	.15	2.35	.020	.229	.022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17	.07	.15	2.30	.022	.249	.019

*Dummy variables(credit: below 3.0,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Moderate, Thoughts on the nursing: negative)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음($\beta=.22, p=.001$), 4.0 이상 학점($\beta=.27, p<.001$), 실습스트레스($\beta=-.21, p=.002$), 3.5~4.0 미만 학점($\beta=.15, p=.020$), 간호직에 대한 생각 긍정적($\beta=.15, p=.02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보통에 비해 좋을 때, 학점이 3.0 미만에 비해 4.0 이상이고 3.5~4.0 미만 일 때,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가 낮을 때, 간호직 생각이 부정적에 비해 긍정적일 때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4.9%이었다 ($F=13.82, p<.001, R^2=.249, Adj-R^2=.231$).

교내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수중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나쁨 기준), 학점(3.0 미만 기준), 전공만족도(불만족 기준), 간호직 생각(부정적 기준), 실습 동료와의 관계(보통 기준)등 5개와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등 총 7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2.198로 2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에 자기상관은 없었고 표준화 잔차도 모두 ± 3 이내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고, 공차한계 .788~.924로 .10 이상, 분산팽창인자 1.083~1.269로 10 이하로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도 없었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in in-school practice (N=215)

Variables	B	SE	β	t	p	Cumulative R ²	R ² Variatio n
(constant)	3.79	.19		19.59	<.001		
Practical stress	-.27	.07	-.25	-3.93	<.001	.114	.11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7	.08	.15	2.18	.031	.184	.070
Credit : 4.0 or higher	.29	.09	.21	3.41	.001	.220	.036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 Good	.26	.08	.21	3.14	.002	.255	.035

*Dummy variables(credit: below 3.0, Relationship with a trainee colleague: Moderate,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 스트레스($\beta=-.25, p<.001$), 전공만족도의 만족($\beta=.15, p=.031$), 4.0 이상 학점($\beta=.21, p=.001$), 실습 동료와 관계 좋음($\beta=.22, p=.001$)이었다. 즉, 교내실습의 실습 스트레스가 낮을 때,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만족일 때, 학점이 3.0 미만에 비해 4.0 이상일 때,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보통에 비해 좋을 때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며 이들 변인들에 의한 자기효능감 설명력은 25.5%였다($F=17.93, p<.001, R^2=.255, Adj-R^2=.240$).

3.6 교내실습 경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27개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부터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경험의 주제는 교내실습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실습결과에 의구심을 가진 것 등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교내실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과 '감염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진 것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임상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잃고 병원 현장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환자를 직접 간호한 경험이 없어서 '현장경험을 놓친 아쉬움'을 갖게 되었고, 실습 물품의 부족이나 임상 의 치료장비와 시설을 경험하지 못하여 '교내실습 환경에 대한 불만' 및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교내실습 교육의 문제'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해서 취업후 적응을 걱정하거나 실무능력이 개발되지 못함으로 인해 '간호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임상실습의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과 '협동학습 경험'과 '학습의 수월성으로 간호지식 확

장'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경험 중 6개의 주제는 부정적 경험이었고, 3개의 주제는 긍정적인 경험이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xperiences of in-school practice (N=157)

Themes	Meaningful contents (Subjects' number)
Negative experience	
A position to accept in-school practice	Inevitable acceptance of in-school practices(38)
	Having doubts about in-school practice outcome(5)
Conflicting perceptions of infection	Low infection risk by practicing on campus(8)
	Even in-school practice, they are concerned about infection(4)
The regret of missing the field experience	I think I missed what I could learn from observation in clinical practice(17)
	Never experienced a hospital-like field atmosphere(10)
	Too bad I couldn't take care of the patient myself(6)
	No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clinics(4)
complaints about in-school practice environment	Not enough supplies for practice (6)
	No treatment equipment or facilities for clinical experience (9)
the problem of unstandardized in-school practice training	Too much theoretical learning in hands-on subjects (3)
	There are many tasks in place of clinical practice, so it is burdensome (22)
	Online practice seems to have little educational effect (2)
	In-School practice is not as systematic as clinical practice (4)
	Want standardized simulation training that can be applied to practice(3)
Fear of being a nurse	I am worri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dapt after employment due to lack of clinical experience(6)
	worry about my future as a nurse after graduation because my clinical practical skills are not developed(8)
Positive experience	
Freedom from the tens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with high autonomy and comfortable atmosphere(11)
	Less tension than clinical practice and easier mind and body(37)
	Reliable time management makes it convenient(12)
	Satisfied with the low burden of practice time(3)
Experienced cooperative learn	Better to communicate with colleagues & learn(2)
	Teamwork strengthened through group activities(4)
Facilitation of learning extends nursing knowledge	Easier questioning and response than clinical(3)
	Professor's quick feedback helps you learn(3)
	It becomes possible to learn theory deeper than class time(45)
	Understanding the clinical scene through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4)

4. 논의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83 ± 0.57 점,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44 ± 0.53 점으로 측정되었고,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가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0.33$, $p<.00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작업치료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한 Whang과 Bang[2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교내실습을 경험한 학생보다 실습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팬데믹 상황 이전 임상실습스트레스 분석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29,30]. 이는 교내실습 시 현장에 대한 부담감과 대인관계 문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 실습스트레스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9].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실습교육환경'(3.30점)과 '실습업무부담'(3.30점)에서 실습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과 Kim[31] 연구에서 '실습교육환경'이 높게 나타난 것과 Kang과 Lee[32]의 연구에서 '실습업무부담'에서 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실습업무부담'(2.79점)과 '실습교육환경'(2.71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중 '임상실습을 대신 한 과제가 많아 부담감'이라 하였고, 이는 Kim 등[33]의 연구에서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주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과제 중심의 교내실습보다는 임상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내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33] 실습지도 교수자는 실습목표에 맞는 과제물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실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30 ± 0.59 점,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23 ± 0.56 점으로 측정되었고, 임상실습의 실습만족도가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94$, $p=.004$).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실습과 임상실습을 비교한 Kim 등[3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온라인실습을 경험한 학생

보다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팬데믹 상황 이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임상실습만족도 분석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35]. 연구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중 '교내실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 '감염에 대한 상반된 인식', '현장경험을 놓친 아쉬움', '교내실습 환경에 대한 불만', '표준화되지 않은 교내실습 교육의 문제', '간호사가 되는 두려움'의 6개 주제의 부정적 경험들이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의 실습만족도 하위영역에서 '실습교과'(3.53점), '실습평가'(3.52점), '실습환경'(3.41점), '실습지도'(3.34점), '실습시간'(3.17점), '실습내용'(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Lee와 Cheon[36]의 연구에서 '실습교과' '실습평가' 만족도가 높은 것과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하위영역은 '실습평가'(3.46점), '실습지도'(3.35점), '실습내용'(3.26점), '실습시간'(3.12점), '실습환경'(3.10점), '실습교과'(2.95점)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중 '임상실습의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 '협동학습을 경험함', '학습의 수월성으로 간호지식이 확장됨'의 3개 주제는 교내실습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양적자료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들이다. '실습교과'의 경우, 임상실습에서 가장 높았고 교내실습에서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험에서 '실습과목인데 이론 학습이 너무 많음'이라고 하였으며, Jang과 Han[37]의 연구에서 온라인실습에 대해서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의 구별에 혼란을 느끼며 '수업인지 실습인지 혼란스러움'의 주제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이론 위주의 학습이 교내실습 '실습교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습내용'의 경우, 교내실습에서는 중간 수준의 영역이었지만 임상실습에서는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업시간 보다 깊이 있는 이론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임상현장을 이해하게 됨'이라고 한 경험이 교내실습에서의 '실습내용'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습지도'의 경우, 교내실습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피드백은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33] 대상자의 경험에서 '교수의 빠른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이 되며 '임상보다 질의 및 응답이 수월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습지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시간'의 경우, 교내실습에서는 중간 정도의 영역으로 대상자의 경험에서도 '안정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실습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만족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Kim 등[33]의 연구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음'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습환경'의 경우, 교내실습에서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험에서 교내실습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실습하기엔 물품이 부족'하고 '임상경험을 할 수 있는 치료 장비나 시설이 없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내실습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교내실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임상실습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내실습을 시행함으로써 실습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42 ± 0.57 점,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45 ± 0.59 점으로 교내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1.26, p = .208$).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였으나, 임상실습 관련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교내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이는 Bandura[36]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형성요인 중 '성취 경험'과 '정서적 상태'의 요인과 연관되어 나타났다고 보인다. 대상자의 경험에서 '임상실습 보다 긴장감이 적으며 심신이 편안'하며 '높은 자율성과 편안한 분위기에 만족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내실습이 시행됨으로써 교내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임상실습에서 간호수행 실패나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경험 등의 과거의 부정적 성취 경험 요인이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실습 동료와의 관계(좋음), 학점(4.0 이상), 실습스트레스, 학점(3.5~4.0 미만), 간호직에 대한 생각(긍정적)이었고, 교내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만족), 학점(4.0 이상), 실습 동료와의 관계(좋음)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생각(긍정적)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교내실습에서는 전공만족도(만족)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점이 달랐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공통된 요인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좋음), 학점(4.0 이상), 실습스트레스였다. Oh와 Kim[4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실습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설명력은 17%로 나타나서 본 연구대상자에서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 적용한 연구 도구가 달라 구체적인 비교가 어렵고 아직 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관련 도구들의 정련화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임상실습에서 실습 동료와 관계 좋음이 교내실습에서의 실습 동료와의 관계 좋음보다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였고 [41] 정서적 지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실습 동료가 중요함을 표현하였다[40].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팀구성 방법을 모색하여 실습 동료와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한다.

임상실습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교내실습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COVID-19 상황임에도 임상실습을 시행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간호사의 역할을 체험하고[42],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부여한 것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SNS를 통해 기사화된 홀로 격리된 고령의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고군분투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실습과정에 눈 앞에 펼쳐지면서 간호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내실습에서 전공만족도에 대한 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에 반해 임상실습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임상실습이 제한적이거나 교내실습이나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습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실습에서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43],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앞으로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44]. 따라서 전

공만족도의 중요성은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간호 교육과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한 임상간호 교육자의 역할 모델을 통해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5].

효율적인 임상실습이란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 임상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된 실습 동안 모든 간호대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다[13].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마다 임상실습과 대체 실습에서의 진행 방식과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 실습 시 임상실습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며 임상실습과 유사한 교육의 효과와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음에 COVID-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임상실습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운영한다면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반복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 분석하고 교내실습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임상실습 시 자기효능감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 학점, 실습스트레스, 간호직에 대한 생각이 영향요인이었고, 교내실습 시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 학점,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영향요인이었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 학점, 실습스트레스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 동료와의 관계와 학점을 향상하는 교육적 전략 모색하며,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격차를 줄이고,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습스트레스 도구는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다음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교내실습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

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임상교육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새로운 교육 모듈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도구 개발 연구 및 다양한 임상실습 현장과 교내실습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E. G. Oh,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2, No.3, pp.221-222, 2020. DOI: <https://doi.org/10.7475/kjan.2020.32.3.221>
- [2] J. Y. Kang, "Simulat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Ontact Age: A Mixed Methods Case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8, pp.937-957,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8.937>
- [3] D. H. S. kang, J. H. Ya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Vol.33, No.5, pp.509-521, 2021. DOI: <https://doi.org/10.7475/kjan.2021.33.5.509>
- [4]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32, pp.205-213, 2006.
- [5]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ng,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16, No.1, pp.14-23,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6] S. Y.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al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4, No.4, pp.235-245, 2019. DOI: <https://doi.org/10.21097/ksw.2019.11.14.4.235>
- [7] M. S. Kim, J. A. Park, " Effects of incivility experienced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rnout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0, pp.811-828,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0.811>
- [8] K. Park, M. Jung, S. H. Kim, "Effects of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2, No.4, pp.1361-1374,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4.97>
- [9] N. K. Lee, N. W. A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 and the image of a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ocused on subject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Journal of the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2, pp.81-93, 202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1.5.2.81>
- [10]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2, pp.216-225, 2011.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1.17.2.216>
- [11] Y. E. Kwon, S. Y. Kim,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80-8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80>
- [12] M. Y. Kim, E. H. Kang, E. K. Byun, "Influencing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99-1710,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99>
- [13]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Statistics*, Vol.40, No.1, pp.24-36, 2015.
- [14] E. H. Gil,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3, No.1, pp.43-51, 2018.
DOI: <https://doi.org/10.15715/kihcom.2018.13.1.43>
- [1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16]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5, No.3, pp.380-386, 2008.
- [17] S. A. Ryu, N. Y. Kim,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1, pp.404-412,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404>
- [18] K. O. Park S. K. chung, "The Influence of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including Virtual Simulation on Goal Commitment,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0, pp.60-67,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0.060>
- [19] Y. S. Kim, H. H. Kim, J. E. Kim,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2, pp.171-184,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2.13>
- [2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1]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 [22]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23]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 [24]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DOI: <https://doi.org/10.4040/jnas.1984.14.2.63>
- [25]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2, pp.333-348, 2001.
- [26]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67,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7] H. S. Oh,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3, No.4, pp.617-630, 1993.
DOI: <https://doi.org/10.4040/jnas.1993.23.4.617>
- [28] M. J. Hwang, Y. S. Bang, "Differences in the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by Clinical Practice Typ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2, No.5, pp.2591-2602,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5.183>
- [29] Y. M. Kim, J. M. Park, S. Y. Yoon,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ter Women Health

- Nursing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8, pp.373-385,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8.033>
- [30] J. Y. Cho, I. H. Chu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9, No.1, pp.29-39, 2019.
DOI: <https://doi.org/10.33502/jksmh.9.1.29>
- [31] H. J. Park, N. H. Kim,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4, No.2, pp.21-29,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21>
- [32] M. A. Kang, S. K. 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52-46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452>
- [33] H. S. Kim, E. M. Kim, D. S.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2, pp.169-17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2.169>
- [34] Y. S. Kim, J. A. Park, Y. J. Lee, "Comparisons among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Online and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4, pp.13-22, 202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1.5.4.13>
- [35]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56-566,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56>
- [36] M. R. Lee, H. S. Jeon,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9, No.5, pp.55-6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55>
- [37] Y. E. Jang, K. S. Han,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Situation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8, pp.702-714,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702>
- [38]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8, pp.433-441, 2021.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1.12.15.8.433>
- [39]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 Hall, 1986.
- [40] Y. K. Oh, E. Y. Kim,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Vol.24, No.1, pp.36-43, 2018.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8.24.1.36>
- [41]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1, pp.27-35, 2003.
- [42]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37-47,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 [43] D. J. Oh, C. J. Choi, B. E. 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64-72, 2005.
- [44]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No.1, pp.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45] O. Y. Wi, J. H. Le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 pp.341-353,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341>

안 수 지(Su Ji An)

[정회원]



- 2022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실습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성 경 미(Kyung Mi Sung)

[정회원]



- 1992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정신건강, 조현병, 양육스트레스